

성경의 맥잡기 – Chapter 4. 왕정시대

D.P.Joshep 2010-06-07 22:52:28

조회 62 스크랩 0

삼손을 마지막으로 사사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정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 중간 시대부터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세 인물이 중심이 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을 세우는 제사장이며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인물 별로 분류해보면, 1장부터 7장에서는 사무엘과 그의 어머니 한나가 등장하고 8장부터 15장은 제사장 사무엘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리고 16장부터 27장까지는 악해진 사울왕과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28장부터 31장까지는 악한 사울왕의 종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 법궤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실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 다윗성으로 안치시키기 전까지는 실로가 성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악한 두 아들 홉리와 비느하스가 성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정이 있었으니 남편 엘가나와 아내 한나였습니다.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다른 아내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한나는 이에 슬퍼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 열심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사무엘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반쪽짜리 진실만을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기도가 이루어진 후에 한나의 태도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한나의 서원기도 내용은 이러합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 '나실인의 서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정말로 사무엘을 낳고 나서 사무엘이 걸음마를 땔 때쯤에 엘리 제사장에게 드리고 생이별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실로와 한나의 집까지의 거리는 16km 였으니 완전히 이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보여주는 것은 열심히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받은 것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받기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한나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그 서원 기도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이를 드리고 나서 더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무엘도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기도에 충실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무엘에게 전무후무한 직위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유일하게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을 겸임한 유일한 인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중간기에 이 세 가지 임무를 모두 감당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2장에서는 한나의 서원 기도 이후에 대한 것과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불량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4번이나 계속 부르시고 사무엘은 4번째의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에서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비극과 함께 전쟁을 통해서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땅에 근접해 있는 족속으로서 5개의 부족이 연합되어 있는 연합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가나안 땅을 노리며 자주 싸움을 걸어온 족속입니다. 5장과 6장에서는 그 빼앗긴 법궤의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놓았다가 혼쫓이 나는 이야기 등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블레셋 족속을 혼내시다가 그에 두려움을 갖게 된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은 지 7개월 후에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보내게 됩니다. 7장에서는 분쟁지역이었던 미스바에서 회개기도 내용과 그곳을 공격하려는 블레셋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곳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신 '에베에셀의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나오는 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버지의 능력 만큼을 두 아들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에 대한 그리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며 또한 사무엘 선지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재미있게도, 사도행전 9장에서도 장차 바울이란 이름을 갖게 될 사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 사울을 찾아가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사울에 대한 표현은 그는 정말 나이스한 사람이었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든 순종할 정도로 열정과 헌신이 넘쳐났던 사람이었습니다. 10장과 11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뽑는 내용과 그리고 나서 사울왕은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사무엘의 고별설교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 말합니다. 13장부터 15장까지에서 사울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잘못은 블레셋과 대치중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번제를 드려야 하는 데, 그의 도착이 자꾸 늦어졌습니다. 이에 사울왕은 초조해 하였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못 버티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그도 사무엘이 주관해야 할 번제를 자신이 직접 주관하여 번제를 드리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사무엘이 늦게 오고 사울이 주변의 시선을 버텨내며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던 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은 영적인 부분이나 예배적인 부분에서 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왕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모두 멸하라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이집트 시절에 하이에나 떼처럼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공격했던 족속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개하게 하였던 족속입니다. 사울왕은 이에 불순종하였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 때문에 남겨두었다고 핑계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무엘은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합니다. 사울왕의 잘못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떠나고 하나님께서는 다음 왕을 고르십니다.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여 다음 왕에게 기름부음을 명하십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유다 지파의 이새의 가정에 가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새의 가정과 다윗의 불우한 어렸을 때를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이 찾아와 가정예배를 드리는 데, 이새는 막내인 다윗은 천덕꾸러기처럼 대하며 다윗만 가정예배 참석에서 빼버리고 양을 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새가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을 보아도 '헛카도니'라 하며 천덕꾸러기로 멸시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윗은 이새에게 사랑 받지 못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택함으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둘을 뽑으라면 골리앗과 대치한 상황과 훗날 왕이 되어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17장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새에게 미움 받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새는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한 세 명의 형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라 시켰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의 위로 집에 있는 형들은 4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어림잡아도 14살 밖에 안 되는 다윗에게 엄청난 무게의 식량을 가지고 그 무서운 전쟁터에 가라고 하고 그것도 못 미더워서 그에게 확인을 받아오라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모든 불우한 환경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전쟁터에 오게 돼서 가장 건장한 사울왕이 나아가야 할 골리앗과의 대전을 대신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그의 명성은 널리 퍼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은 가정에서의 고난을 떠나서 세상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18장과 19장에서는 다윗은 자신에 대한 명성으로 오히려 사울왕의 시기와 분노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그에게 처음으로 사랑을 알려준 친구가 있으니 바로 사울의 아들이며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에 순종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왕의 자리에 대한 경쟁자일 것인데, 다윗에게 무한한 친구의 우정과 사랑을 주었으니 말입니다. 20장에서는 그는 요나단의 도움으로 도망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는 피신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미친 척도 하고 불쌍한 척도 하며 계속적으로 고난을 감수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세력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4장에서는 자신을 쫓는 사울과 이를 벗어나려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으면서도 그것을 놓아주며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십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25장에서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위대한 리더십이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결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윗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 일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장에서는 다시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다윗이지만, 다

시 놓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장에서는 가드로 망명하는 다윗의 가슴 아픈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28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 가문의 종말을 보게 되는 데,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 그리고 다윗의 영원한 친구였던 요나단이 죽게되며 사무엘상이 끝나게 됩니다.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며 또한 다윗의 잘못도 나오게 됩니다. 1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장애자 '이스보셋'을 유다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지파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윗이 7년 6개월간 왕이 됩니다. 3장에서는 다윗의 자녀들이 소개되고 4장에서는 '바아나'와 '레갑'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죽게 됩니다. 5장에서 드디어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의 작은 공동체의 리더십이었던 다윗이 30세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33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 영적으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에 기뻐하는 다윗왕과 그것을 우습게 본 사울의 딸인 미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에서 다윗왕은 성전 건축을 제의하지만, 나단 선지자에게 피로 물들인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기에 다음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8장에서는 어디를 가든 승리하는 다윗왕의 승리 스토리 9장에서는 므비보셋에 대한 이야기 10장에서는 암몬 연합군에 대한 승전 소식이 이야기를 이룹니다. 11장에서 다윗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를 보게 되는 데, 바로 밋세바와의 간음과 그의 남편 우리야를 죽이게 되는 것이지만, 언론 플레이에 잘 포장되어서 별 탈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벌을 말하자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13장에 가서는 또 한 번의 다윗의 수난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의 가족들을 보면, 다윗에게는 성경에 언급한 아들들이 암논, 아비가일과의 사이에서 낳은 길르앗, 압살롬, 마도니아 그리고 솔로몬 등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친구 요나답과 함께 음모를 꾸며서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압살롬이 이 둘을 죽이고 3년간 피신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는 어설픈 아버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도망가 있는 압살롬에 대해서 슬퍼하였습니다. 그에 정치적으로 머리 회전이 빠른 다윗의 신하인 요압이 중재하여 다시 압살롬을 다윗의 성읍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2년간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새에 대한 상처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역할을 몰랐던 다윗이기에 압살롬의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은 점차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15장에서 압살롬은 아버지와 재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헤브론으로 가서 자신의 세력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 성을 공격하고 나단 선지자의 예언처럼 다윗의 처들을 대낮에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겁탈하게 됩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게 되고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20장에서 다시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지만 바로 제압되며 21장부터 23장까지 다윗의 과거 회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명이 죽게 됩니다.

열왕기상에서는 다윗의 말년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의 말년에는 영성이 맑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윗 다음의 왕권에 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1장에서 영성이 맑지만도 나이가 많은 다윗의 모습과 그로 인한 차기 왕권에 대한 난립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은 다음 후계자로 솔로몬을 세웁니다. 2장에서 위대하였던 다윗왕은 죽게 되는 데,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하게 되며, 어려운 사람을 경계하라 합니다. 이에 솔로몬은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그리고 시므이를 숙청하게 됩니다. 3장부터는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3장에서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라 하여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이에 감동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4장에서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로 통치하게 됩니다. 5장과 6장에서 나단 선지자의 예언처럼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7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인력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7장에서는 자신의 궁을 13년에 걸쳐서 건축하게 됩니다. 7장에서는 성전봉헌식을 하는 데, 아론의 싹눈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금 향아리가 사라진 언약궤를 성전으로 안치하며, 솔로몬의 봉헌 기도 그리고 수 많은 소와 양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9장에서는 솔로몬의 업적이 적혀있으며, 10장에서는 솔로몬의 엄청난 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갈구하는 스바여왕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그의 지혜 욕구를 해소시켜주고 수많은 재물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들리는 이야기로는 잠자리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타락하게 됩니다.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될 사람이 금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는 데, 첫 번째는 금을 모으지 말 것과 또한 말을 모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군사력을 의미함으로서 군사력을 모으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을 조심하라 이르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방패까지 순금으로 만들 정도로 금이 많았으며, 수 많은 말들을 사들이고 전차를 만들었으며, 그의 아내는 아시다시피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1장에서 솔로몬에게 두 번씩이나 경고하셨습니다. 아버지인 다윗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결국에는 왕국이 분열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12장에 와서는 드디어 왕국이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 있으며, 전도서를 통해서 부의 끝은 다 부질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당신은 다 누려봤으니 그렇게 말하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진실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다하지 말고 정말로 참된 것에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삽시다.